

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

- 「1인창조기업법」에 따라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하고, 그 결과를 발표
- 2021년 기준 1인 창조기업 대상...1인 창조기업 수 전년대비 증가(7.7%)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오영주)는 28일 ‘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*’ 결과를 발표했다.

* 「1인창조기업법」 제6조에 근거한 법정조사(국가승인통계 제142015호)로 2012년부터 매년 조사·공표

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(부동산업 등 제외*)이다.

* 제외업종(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별표1) : 부동산업, 도·소매업, 숙박업, 음식점·주점업, 광업, 수도업, 운수업, 금융·보험업 등 32개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)

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(SBR)에 등록된 사업체 중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.

<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개요 >

- ◇ (조사대상) '21년 기준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
- ◇ (유효 표본 수) 5,000개 사업체
- ◇ (조사내용) 일반현황(11개), 1인 창조기업 창업현황(24개), 기업 운영현황(21개), 지원정책(8개) 등 총 64개 항목으로 구성
- ◇ (표본오차) 95% 신뢰수준에서 허용오차 $\pm 1.38\%$
- ◇ (조사방법) 방문 면접조사(이메일, 팩스, 인터넷 조사 병행)
- ◇ (조사기간) 2023년 7월 ~ 10월

1인 창조기업 일반현황

'21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987,812개로 전년대비 7.7% 증가하여 동기간 전체 창업기업 수 증가율(5.8%)보다 높게 나타났다.

< '19~'21년 연도별 1인 창조기업 및 전체 창업기업 수 >

구분	'19년	'20년	'21년	'20년 대비 '21년 증감
1인 창조기업	458,322개	917,365개	987,812개	70,447개 ↑ (7.7% ↑)
전체 창업기업	4,016,385개	4,299,673개	4,549,158개	249,485개 ↑ (5.8% ↑)

* 1인 창조기업 모집단은 '20년부터 그간 포함되지 않았던 가구 내 사업체인 전자상거래, 1인 미디어, 프리랜서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, '20년을 기준으로 전후의 시계열 비교는 어려움

업종별로는 '제조업'(26.2%), '전자상거래업'(21.2%), '교육서비스업'(16.7%)을 주로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 업종별 1인 창조기업 비중 (단위 : %) >

구분	제조	전자상거래	교육서비스	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	사업시설관리 등 서비스	출판·방송·통신 등 서비스	개인·소비용품 수리	창작예술·여가 서비스	농림어업	기타 금융 지원	계
비중(%)	26.2	21.2	16.7	11.5	7.4	7.3	6.9	2.1	0.4	0.3	100

지역별로는 경기 28.0%(27.6만개), 서울 24.0%(23.7만개), 부산 6.2%(6.1만개) 순으로 나타났으며, 수도권이 57.2%(56.5만개), 비수도권이 42.8%(42.2만개)를 차지하였다.

< 지역별 1인 창조기업 비중 (단위 : %) >

수도권 (57.2)			비수도권 (42.8)														계
경기	서울	인천	부산	경남	대구	경북	충남	전북	전남	대전	충북	광주	강원	울산	제주	세종	
28.0	24.0	5.3	6.2	5.9	4.6	4.3	3.4	2.7	2.6	2.5	2.5	2.4	2.3	1.6	1.1	0.6	100

평균 업력은 약 12년으로 '2010년 이전'에 설립된 기업이 35.5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, 1인 창조기업의 형태를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'21년 기준 매출액 평균(2.98억원)은 1인 창조기업이 전체 창업기업(2.44억원)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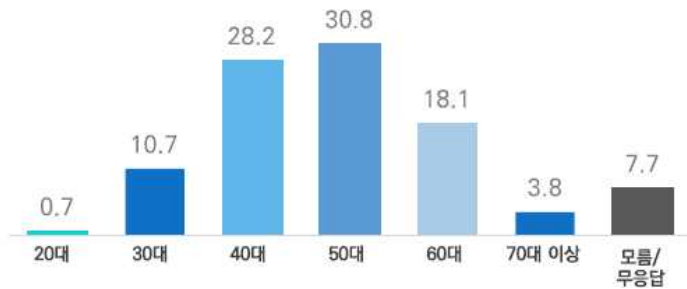
* (1인 창조기업 매출액 평균) ('19년) 2.44억원 → ('20년) 2.77억원 → ('21년) 2.98억원
(전체 창업기업 매출액 평균) ('19년) 1.85억원 → ('20년) 2.30억원 → ('21년) 2.44억원

1인 창조기업 특성현황

대표자 연령은 50대가 30.8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20대가 0.7%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. 청년창업(39세 이하) 비중은 11.4%로 전체 창업기업의 청년창업 비중(17.3%)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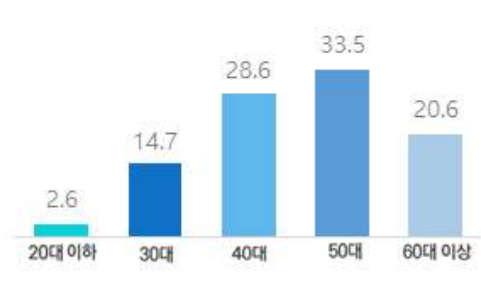
< 1인 창조기업 대표자 연령 >

(단위: %)



< 전체 창업기업 창업자 연령 >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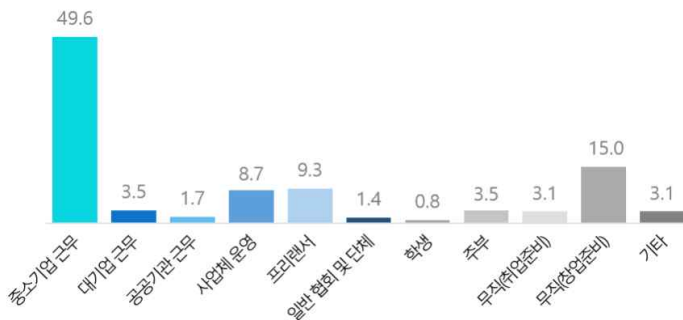


창업 동기는 ‘적성·능력 발휘’(42.8%), ‘고소득 창출’(26.1%), ‘생계유지’(14.1%) 순으로 높았으며, 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12.1개월로 조사되었다.

대표자의 창업 전 주요 근무 경력은 ‘중소기업 근무’가 49.6%로 가장 높았으며, ‘창업준비’(15.0%), ‘프리랜서’(9.3%) 순으로 나타났다. 한편, 전직 업종과 현업 연관성 정도는 ‘긍정의견’(연관있다, 매우 연관있다)이 59.3%로 기존 경력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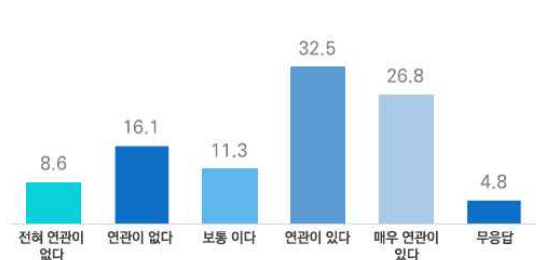
< 창업 전 주요 근무 경력 >

(단위: %)



< 전직 업종과 현업 연관성 정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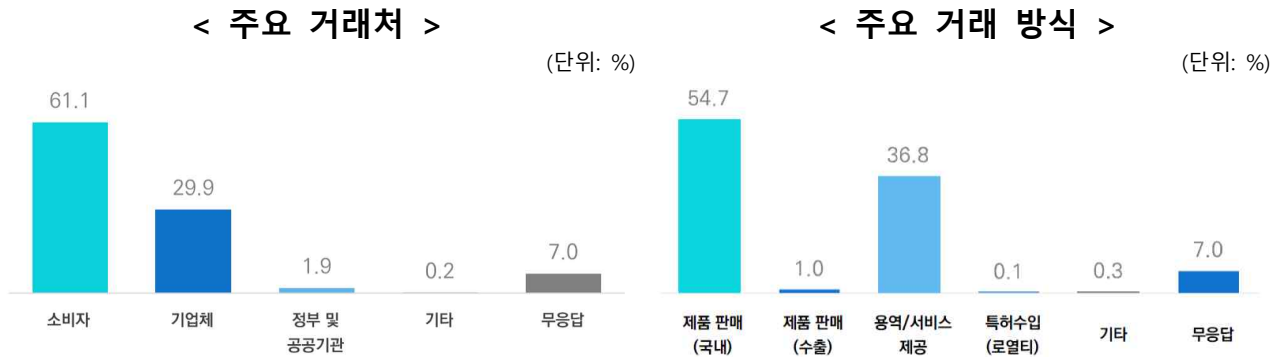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주요 거래처로는 ‘소비자(B2C)’가 61.1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, 다음으로 ‘기업체(B2B)’(29.9%), ‘정부·공공기관(B2G)’(1.9%) 순으로 나타났다. 전체 창업기업의 주요 거래처* 중 ‘B2C’가 75% 이상을 차지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.

* 전체 창업기업의 주요 거래처 비중 : B2C(75.7%), B2B(21.6%), B2G(2.6%) 등

주요 거래 방식은 ‘제품 국내 판매’가 54.7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, 다음으로 ‘용역 및 서비스 제공’(36.8%), ‘제품 수출 판매’(1.0%) 순으로 나타났다.



또한, 창업 후 첫 매출 발생기간은 평균 2.6개월(전년 동일), 손익분기점 도달 소요기간은 평균 20.2개월(전년 15.3개월)로 나타났다.



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“이번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는 창업기업실태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관련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”라며, “1인 창조기업 육성 3개년(’24.~’26.) 계획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”고 밝혔다.

※ 「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」 결과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(<http://www.mss.go.kr>) 또는 창업진흥원 누리집 (<http://www.kised.or.kr>)에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창업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박은주 (044-204-7600)
		담당자	사무관	정홍주 (044-204-7672)
			주무관	양희진 (044-204-7678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